

추 모 사

해동 선종의 근원(根源)이시자 우리 조계종의 뿌리이신 도의국사님 각령전에 분향 배례하고, 크나큰 법은(法恩)에 보답코자 감로다(甘露茶)로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대각을 얻으신 후 가섭존자에게 여래의 심인(心印)을 부촉하신 이래로, 달마대사에 의해 중국에 전해지고 육조 혜능대사에 의해 선종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법을 도의국사께서 이 땅에 전하시니 그 덕화가 오늘에 이르러 이 땅이 간화선의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도의국사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오래 기다리고, 함께 하고자 함의 연속이었습니다. 37년간 타국에 머물며 구법하였으며, 40년이라는 시간을 진전사에 머물며 선종의 깊은 뜻을 전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여래의 심인이 이 땅에 전해질 것이라는 간절한 서원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 간절한 발원과 인욕행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면면부절((綿綿不絕)한 전등(傳燈)의 역사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종조님의 다례를 맞는 우리는 이와 같은 발원과 인욕행이 되새기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한 서원이 있는가? 오래 기다리고, 더디 가도 함께 가려 하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불퇴전(不退轉)의 서원을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종조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며, 종지를 선양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인욕과 화합의 가르침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달했으나 오히려 정신의 삶은 퇴보하고, 대화의 길은 많아졌으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소홀해지고 말았습니다. 불합리한 사회현상의 연속으로 민생은 조그마한 사안에도 이겨내려는 용기보다 불안이 먼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더욱 더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래의 심인이 열리면 지혜와 자비의 마음 또한 열리게 되니, 이러한 토대 위에 공존공영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남을 가르고, 좋고 싫음에 매여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 평등무차별의 자비를 실천할 때 이룩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인욕행과 자비의 실천은 언젠가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여래의 심인을 펼치기 위해 참고 기다리며, 함께 가려 하셨던 종조의 삶 또한 그러했으니 후학의 나아갈 길은 이미 환하게 비추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대의 공덕위에서 후학들은 더불어 함께 사는 상생의 정토를 이루는 일에 쉽없이 매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도의국사님의 법은에 보답하는 정진으로써 모두가 청안한 삶에 이르기를 바라며, 사회와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2015)년 6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분향